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 권한 달라”

8년만에 전국판사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 조사

대법원장에 권한 위임 요구

사법개혁 방안 등 논의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 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판사회의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련한 이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 위임을 요구했다. 형식상 각급 법관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판사회의’는 조사 활동을 할 근거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기록 및 자료를 법관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종현 법원행정처 전 처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전 상임위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들이 작년과 올해 사용한 컴퓨터와 저장 매체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 판사들은 추가조사를 위해 ‘현안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서 선정한 판사 ‘대표자’ 100여명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개선책 마련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는 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위원장에는 최한돈(52·28기)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이들은 다음 달 24일에 2차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추가 조사 결과를 2차 회의 때 보고한다. 아울러 이들은 ‘판사회의’ 상설화 안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가 모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2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송 부장판사는 향후 조사 계획과 관련해 “조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대표자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므로

대법원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00명은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8년만에 열린 전국 판사회의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5명의 판사들이 참석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이규진 전 위원이 이

모 판사를 통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인사 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위원은 올 초까지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당초 부당 지시를 내린 의혹이 제기된 임종현 전 차장은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조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하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망에 ‘현안과 관련해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회의가 열리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100원 택시’ 만족한다” 80%

도, 2697명 조사… 절반은 병원 이용

민선 6기 전남도의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인 ‘100원 택시’를 탄 이용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보성군과 화순군에서 ‘100원 택시’를 시범 운영 이후 매년 확대해 올해 모든 지역이 시내권인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 2만1622명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지난달 25일 까지 10일간 ‘100원 택시’ 이용자 2697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조사를 했다. 조사는 이용 목적 및 방법, 이용자 만족도 등 1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2236명으로 82.9%를 기록, 2015년(81.4%)보다 1.7%p가 상승했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이용 목적에 대해선 병원(45.9%)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장 852명(26.8%), 관공서 356명(11.2%) 등의 순으로,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곳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0원 택시’가 단순한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이같은 전남도의 ‘100원 택시’가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돼 현재 관계 부처가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정부 사업이 전국화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전남 대표 브랜드인 ‘100원 택시’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직장인 휴가 61%만 쓴다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문재인 정부가 근로자들의 쉼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휴가 소진율은 61%에 불과해 법으로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즐기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았지만, 이 가운데 8.6일(60.6%)만 사용했다.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1923만명을 곱하면 1년 동안 1억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80%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때 1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정보회사인 익스피디아는 2016년 조사·발표한 ‘전 세계 주요 28개국의 유급휴가 사용 실태’에서도 유

사한 결과가 나왔다.

익스피디아 조사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는 15일 중 8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 조사에서 6년 연속 세계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에 이르렀다.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김지학 주임 전문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이 매우 길지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가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어 일과 여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30시간, 독일보다 740시간 더 일한 2113시간을 일했지만, 법정 유급 휴가 15일 중 6일만 쉬는 등 가장 조금 쉬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휴가 5~6일을 모두 쓰면 20조원에 이르는 경제파급 효과가 생기고 고용창출 효과도 38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피의자 수사단계부터 지원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국정기획위,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은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조실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단계부터 고문,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불법수사가 없도록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재판 단계

에서 관여한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올해 이 제도의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4대 복합·혁신 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하고 예산·조직·인력 등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반기 부서관·의무군무원 1500명 채용

국방부 “청년 취업률 제고”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보’ 정책에 부응하고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부서관과 의무군무원 등 1500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각 군 부서관의 경우 육군 817명, 해군 175명, 해병대 67명, 공군 101명 등 1160명이다.

의무군무원은 간호사 133명, 간호조무사 71명, 약사 38명, 치과위생사 22명, 물리치료사 20명, 의무기록사 16명, 임상병리사 10명 등 340명이다.

국방부는 “이런 채용 규모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2000명 총원 계획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서관 증원은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간부 증원 계획의 하나로, 중사, 하사 중심으로 뽑게 된다.

추경안이 국회로 통과하면 하반기에 군별 채용공고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선발을 확정한다. 선발된 인원은 내년부터 각 군 부대에 배치되어 근무한다.

국방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부서관과 군무원이 채용되면 청년층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간부 중심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양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 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000만원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100만원

문의 010-9203-6161